

# “수천만 송이 붉은 장미 장관”...곡성 지역상권 훈풍

### 제16회 곡성장미축제 31일까지 기차마을서 ‘장미사춘기’ 주제로 공연·체험 등 조화 오감만족 선사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지역상권에 훈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곡성군이 제16회 곡성세계장미축제를 맞아 수천만송이의 장미 향과 다채로운 융복합 콘텐츠를 앞세워 대대적인 관광객 맞이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25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섬진강기차마을 전역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축제는 기존 장미공원에 국한했던 행사를 기차마을 전역으로 대폭 확대해 역대급 규모와 쾌적한 관람 환경을 동시에 구축했다.

올해는 ‘열여섯, 장미사춘기 설렘, 성장, 변화’를 핵심 주제로 삼아 단순 관람을 넘어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거대한 문화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꾀했다.

특히 대표 프로그램인 ‘황금장미를 찾아라’를 치지뽀뽀놀이터 광장으로 전격 이동 배치하고, 동선 곳곳에 ‘섬·설렘 포토존’ 등 스토리텔링형 휴게 공간을 짜입새 있게 조성해 걷는 즐거움과 시각적 유희를 배가시켰다. <사진>

축제 첫날인 22일 오후 5시에는 지역민이 주도하는 ‘웰컴 로즈 퍼레이드’로 화려한 서막을 열며, 이어지는 장미공원 버스킹 켈린지와 로맨틱 로즈 포토존 등 관람객 주도형 행사가 축제장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낮에는 형형색색의 장미가 발길을 사로잡고 밤에는 화려한 미디어 조명이 수놓는 야간경관

축제로 변모해 오전 8시~오후 10시까지 체류형 관광을 유도한다.

단순한 일회성 유희를 넘어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등 기차마을만의 독자적인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과 다채로운 먹거리 부스를 연계해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도 도모한다.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교통·안전·위생·편의시설 등 행정 전반에 걸친 촘촘한 현장 점검을 마쳤으며, 유관기관과 공조해 단 한건의 사고도 없는 무결점 청정 안전 축제를 완성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축제 기간 곡성청년회의소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이 고향사랑기부제 보다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와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곡성군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고 답례품을 신청한 기부자에게는 인기 답례품 13종 추가 증량 혜택을 제공하며, 기부자 중 100명을 추첨해 GS2 51만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밖에 축제 현장에서는 ‘1+1 친구 추천 이벤트’를 비롯해 현장 기부자를 대상으로 캐릭터 풍선 증정, ‘곡성사랑응원단’ 가입 참여자 대상 기념품 증정 등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더욱 풍성해진 프로그램과 압도적인 장미 경관으로 방문객에게 최고의 봄날을 선사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가정의 달 5월, 곡성에서 잊지 못할 만남을 만끽하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장성군 황룡강 상류에 조성된 생태 놀이 공간 ‘황미르랜드’를 찾은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장성군 제공>

## 장성 황미르랜드, 가족 나들이 생태 명소 ‘각광’

### 3만6천553㎡ 부지 생태 특화 공원 집라인·황토길·물놀이 시설 등 갖춰

장성군 황룡강 상류에 조성된 생태 놀이 공간 ‘황미르랜드’가 맨발 황토길과 다채로운 놀이 시설을 앞세워 주말·휴일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25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을 영천리 일원 3만6천553㎡ 부지에 조성된 이곳은 그네·집라인 등 각종 놀이기구를 비롯해 700m 길이의 맨발

황토길, 100m 규모의 계류형 물놀이 시설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황미르랜드는 하천 상류 한가운데 위치한 섬의 지형을 살려 남녀노소 누구나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도록 만든 생태 특화 공원이다. 차량 출입을 인도교로만 제한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기 좋은 안전한 환경을 구축했다.

잔디 언덕 위에는 햇빛을 피해 쉬어갈 수 있는 ‘호빛의 둥굴’을 조성해 즐길 거리를 더으며,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장성 황룡강 음악힐링 축제’ 기간에는 텐트 안에서 독서를 즐기는 ‘북

캠프존’도 별도 운영했다.

나아가 공원 주변 상류 지역에 숙박·산업 단지 및 휴가지 원격 근무 시설인 ‘코워킹스테이션’ 등을 연계 구축해 지역 체류형 관광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구상이다.

심우정 군수 권한대행은 “황미르랜드만의 자연 친화적 장점을 살려 더욱 매력적인 쉼터로 가꿔 가겠다”며 “장기적으로 장성 황룡강을 상징하는 대표 관광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 장흥군,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그냥드림’ 시행

### 매주 화·목 종합사회복지관서 지원

장흥군은 “최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 누구나 별도 증빙서류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냥드림’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잡한 심사나 서류 준비 등의 장벽으로 기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필요시 맞춤형 복지 상담과 지원 연계까지 돕는 마중물 역할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이 꼭 필요한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장

흥종합사회복지관 1층을 방문하면 된다.

현장에서 간단한 자가 체크리스트만 작성하면 1회 2만원 상당의 물품을 최대 3회까지 수령할 수 있다. <사진>

또한 복지관은 향후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 직접 방문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각 읍·면별로 ‘찾아가는 그냥드림’ 서비스도 병행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정책을 잘 모르거나 절차가 까다로워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군민들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지역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 담양군 ‘2027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담양군은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과 토양 환경 보전을 위한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행하며 영농편의에 나섰다.

25일 담양군에 따르면 개정된 시행지침에 따라 기존 11~12월이던 접수 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앞당겨 사전 행정절차를 조기 마감하고, 내년 연초 농가에 비료를 신속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농업축산부산물물의 자원화를 촉진해 토양에 필수 유기물을 공급하는 친환경 영농 필수 시책으로, 혼합유기질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족분퇴비를 비롯한 부속 유기질비료 2종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10일 ‘농업이(e)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으로 우선 진행되며, 이후 오는 7월 10일까지 30일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입팀을 통해 대면 서류를 접수한다.

다만 사업 신청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전년도 비료 정보를 기준으로 접수가 이뤄지는 만큼, 추후 실제 공급 시점에 비료 가격이 일부 변동될 수 있어 일선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만기 농업유통과장은 “신청 시기 변경으로 농업인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적기에 비료를 공급해 영농 활동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새로운 공급 체계를 자질 없이 안착시켜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 기자

## 화순문화관광재단, 치유관광 참가자 모집

### 29일 양참사막·고인돌공원 일원서 30~50대 女 대상...감성 드로잉 등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 지역의 자연과 미식, 역사 자원을 결합한 맞춤형 치유 관광 프로그램을 참가자를 모집한다.

25일 화순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이번 ‘안녕 영두야: 내 안의 소녀를 만나다’ 프로그램은 로컬 여행 브랜딩 사업인 ‘화사프로젝트’의 세번째 기획으로 30~50대 여성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다.

어린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는 다채로운 감성 요소를 엮어내어 여성 맞춤형 치유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행사는 오는 29일 도곡면 전통 고택 양참사막과 화순 고인돌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국가민속유산인 양참사막에서 한식 대가가 지역 농산물과 영두로 정성껏 차려낸 ‘치유 만찬’을 즐기며, 고택에 얽힌 스토리텔

링 해설이 더해져 전통 식문화와 지역 역사의 깊이를 전달 예정이다.

이어 고인돌공원으로 이동해 탐방버스를 타고 전문 해설사와 함께 세계적 유산인 고인돌 유적지를 둘러보며, 공원 내 영두밭에서는 직접 영두를 수확하고 이를 활용해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어보는 쿠킹 클래스가 진행된다.

또한 지역 기획자와 함께 화순에서의 추억을 화폭에 담은 ‘오늘의 기억 드로잉’ 등 오감을 채우는 감성 치유 콘텐츠가 이어진다.

참가 신청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재단은 지역민과 외부 관광객의 균형 있는 참여를 위해 수도권 관광객을 전담 여행사를 통해 유치하고, 나머지 절반은 자체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구중현 대표이사는 “화순의 다채로운 자원을 융합한 화순만의 치유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로컬 여행 상품 개발을 통해 화순 관광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 보성군, 득량만권 개발로 ‘해양 르네상스’ 이끈다

### 울포항 국가어항·해양복합센터 건립 ‘세계적 체류형 해양관광 도시’ 도약

보성군은 25일 “울포항 국가어항 지정과 울포해양복합센터 건립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며 ‘해양 르네상스’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군은 ‘세계적 체류형 해양관광 도시’ 도약을 위해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핵심 거점인 울포항 일원에는 총 717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이 투입되며, 현재 공정률 50%인 울포해양복합센터(441억원)는 수심 4.5m 다이빙 풀과 인피니티풀 등을 갖춘 세계적 관광 시설로 조성된다.

더불어 2027년 국가어항 지정 고시를 목표로 올해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울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청년활력 온(ON) 플랫폼을 연계해 청년 창업 거



울포해양복합센터 조감도.

<보성군 제공>

리를 조성하며, 군농항과 청양항 일원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해 관광과 생태, 문화가 결합된 해양 복합 지구를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이상철 보성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득량면 등 핵심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며 “세계적 체류형 해양관광 기반을 다지고 지속 가능한 어촌을 조성해 득량만권을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 거점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 여수해수청, 노후 등대 개량...안전 뱃길 조성

### 국비 1억 투입 철구조물 교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는 여수구항과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 이용 선박의 무사고 입·출항을 돕기 위해 노후화된 여수구항등대 개량 공사를 본격 완료하며 안전한 뱃길 조성에 나섰다.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최근 국비 약 1억원을 투입해 기존 낡은 구조를 내구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철구조물로 전면 교체하는 등대 정비 사업을 최종 마무리했다.

해당 여수구항등대는 연안여객선터미널 방파제에 설치돼 밤낮으로 선박의 뱃길을 안내하는 핵심 항로표지시설로, 오랜 기간 거친 해

양환경에 노출되면서 본연의 기능 유지를 위한 전면적인 시설물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량을 통해 선박 항해의 안전성을 대폭 높인 것은 물론, 기존 수직 사다리 대신 외부 계단식 구조를 새롭게 적용해 현장 점검자가 추락 위험 없이 유지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 항로표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선박 안전운항을 적극 돕겠다”며 “항상 점검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작업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